유튜브 강제 여름 공습 예고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제3017호 www.metroseoul.co.kr

축구대표감독 황선홍·최용수?

와! 방학이다! 17일 전국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 돈암동 선신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친 어린이들이 학교를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계 그룹 편의점 진출한다

'위드미' 간판달고 연말까지 1000개 매장 추진
로열티 없고, 24시간 영업 없는 차별화 내세워

신세계그룹이 17일 '위드미' 간판을 앞세워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말까지 현재 137개에 불과한 매장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처럼 유통 공룡 기업의 업계 진출에 그동안 '3강1약' 구도를 유지해오던 국내 편의점 업계가 바짝 긴장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가 공식 집계한 편의점 점포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2만4859개다. 이 가운데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7955개(32%),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7729개(31.1%)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 가족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가 총 6262개(25.2%), '미니스톱'이 1913개(7.7%) 점포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4개 회사가 전체 편의점 매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 막강한 자본력과 자체 제품 생산력, 유통망을 앞세워 판세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 3 NO로 수익 적은 기존 점포 타깃 유지

이번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시장 진출에 대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도 많다. 하지만 신세계측은 ▲NO 로열티 ▲NO 365일/24시간 영업 ▲NO 중도해지 위약금 등 기존 편의점 본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점주가 이익을 가져가는 새로운 가맹모델을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노(NO) 로열티 원칙을 통해 경영주들은 매출 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의 로열티를 본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신 매달 일정수준의 정액회비를 내며,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60만원(2년)이다.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을 내면 된다.

기존 편의점 폐해로 지적됐던 365일/24시간 영업 제도도 없앴다. 경영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정하고, 휴일 매출이 적거나,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경영주의 판단으로 본부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기존에 가맹점포가 중도 계약을 할 경우 본사에 2~6개월 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냈던 '기대수익 상실액'도 없앴다.

신세계측은 이런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이익을 보지 못했던 편의점 점포 다수가 위드미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30~40대 주부·여성 타깃, PL상품 50% 구성

위드미는 가맹점 운영 정책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현재 20~30대 학생·회사원 등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편의점 주 고객층을 넓혀 30~40대 주부 여성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제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담배와 주류 매출이 48%를 차지하는 기존 매출 구성에서 벗어나 삼각김밥·김밥·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 편의점 대표상품의 원재료를 국내산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가정간편식(HMR)·자체상품(PL) '피코크'의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PL과 해외소싱 상품을 올해 20% 정도에서 2017년에는 50% 내외로 높이기로 했다.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후발주자인 위드미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군소 업체 가맹점을 제외하고 전환 비용이 20평 기준으로 4000여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위드미는 당장의 이익보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기준을 매장 수 250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며 "최소 몇 년간은 본사가 많은 이익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편의점 업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점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정해남기자 jhnam@metroseoul.co.kr

한전 부지 '경쟁입찰' 확정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최고가 일반 경쟁 방식으로 매각한다.

한전은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본사 부지 7만9342㎡의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한전은 본사 부지의 미래가치를 토지가격에 반영한 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개인과 법인, 공동입찰 등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입찰 참가 자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은 입찰 공고와 함께 명시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경쟁입찰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말께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부지를 팔아 부채 감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한전 본사 부지 매각을 놓고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이날 "한전부지 매각 방안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한전부지 인수전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그룹은 2011년 삼성생명을 통해 한전 본사 부지 근처 한국감정원 부지를 사들였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함께 한전 터를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재영기자 ly4403@

악수하는 여야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17일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항공기·여객선 입항 허용

인천AG 참여 실무접촉 '난항' · 선수-응원단 비용 지원 등은 부정적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여객선 만경봉호나 북한 항공기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하길 원할 경우 수용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국제 경기인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북한이 원할 경우) 만경봉호가 오는 것은 5·24 조치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5·24 조치에도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도 다른 나라 경기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국제적 관행이 있어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북한 여객기나 만경봉호를 타고 인천에 오면 5·24 조치 이후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우리측에 들어오는 첫 사례가 된다.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했다. 또 제주해협 통과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남북 협력기금으로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지원은 대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남북은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된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아시안게임 남북 실무 접촉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 실무접촉이 1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려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제공

오해 피하려다 불신 키운 '인터파크'

기자 수첩
정혜인 <생활경제부 기자>

얼마 전 인터파크 직원이 남성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콘서트 티켓을 빼돌려 재판매를 시도하다가 인피니트 팬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사과문을 해당 예매 페이지에만 게시했을 뿐 전체 인터파크티켓 공지사항에는 올리지 않아 인터파크 이용자로서 큰 실망을 느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이용자들이 전체 티켓 예매 사업자를 에게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 콘서트 외에도 외국 가수의 내한 콘서트·프로야구·뮤지컬 등을 예매해본 경험이 있다.

판매 되는 좌석 수는 정해져 있고 관람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면 예매 경쟁은 치열해진다. 서버 불안정으로 접속조차 안 돼 표 한 장 구하지 못한 채 매진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럴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누군가 나보다 먼저 예매를 했기 때문에 좌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동안 혹시 했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인터파크 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며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한 번 싹튼 의심을 사그라지게 하기엔 부족한 해명이다. 다른 티켓 예매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터파크에선 다른 티켓 예매 사이트들보다 '단독 판매'하는 공연들이 많다. 이번 인피니트 콘서트 역시 그랬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오해를 넘어 팬들은 물론 공연기획사, 공연 당사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정혜인기자

윤상현 "권은희 논문 49부분 표절"

野 "각주 누락 실수" 반발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17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연세대 법학과 석사 논문을 집중 분석한 결과 7명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91쪽 논문 중에 30쪽이 표절로 드러났다. 양적으로 대단한 분량이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타인의 논문에서 문장을 빼껴 쓴 게 26곳인데 2차 문헌 표절은 출처 표절이 동반되는 행위로, 고의성까지 확인된다.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측은 "석사학위 논문은 권 후보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에 사기사건을 모아서 경험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표절이 될 수 없는 논문"이라며 "다만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표절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서남수 교육·유진룡 문화 면직 통보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장관이 면직됨에 따라 교육부와 문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규제개혁 위원장 서동원·실장 강영철

● 4개월 넘도록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공동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석 상태이던 규제조정실장에 강영철(58) 풀무원홀딩스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한국대표단 방일

● 한국과 일본 의회 간 외교 모임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측 대표단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날 "합동 간사회 참석 차 여야 의원 12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태극기 게양 17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 의장 제헌절 행사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현행 선거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냐고 생각한다"며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는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 틀은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나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돼야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고 급속도로 변해하는 세계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연순기자 [illegible]

"살해 재력가 장부 또 있다"

2006년 이전 기록 추가 확보 · 현직 의원 여러번 등장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기존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적혀 있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원래 장부보다는 덜할 수 있다"며 "송씨가 재산을 쌓은 시기도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새 장부보다 원래 장부에 로비 의혹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의 장부에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 공무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적혀 있다. 한 현직 의원 이름 옆에는 200만~300만 원의 금액과 함께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됐다. 이 의원은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기존 장부에 적시된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 유력 증거로 쓰일만한 단서들을 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용기자 ydy@metroseoul.co.kr

해병대 캠프 사고 1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주사대부고 56기 졸업생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의 죽음과 관련해 정부의 사고 관련 재수사와 관계 기관 감사를 통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천 탈락 앙심' 다량 문자 전 강남구청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일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심사에 관여한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강남구청장 권문용(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189건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비방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정기자 jhj@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시한 21일 · 31명은 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와) 정상적인 대화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교육지부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김학준기자

친환경 전국 자전거 캠페인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며 친환경녹색실천활동 전국 자전거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직원 낮잠 허용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단,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조현정기자

저침한 헬기 잔해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인도에 소방헬기가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직후 수습 중인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도심서 소방헬기 추락

탑승자 5명 전원 사망 · 세월호 수색 마치고 복귀 중 참사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17일 오전 10시 5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탑승자는 조종사 정성철(52)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50)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39)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42)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31) 소방사다.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1명도 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소방본부 소속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지원 임무를 시작했다. 사고 사흘 전인 14일부터 다시 현장에 투입돼 유실물 수색작업을 하려다 진도 해역 기상 악화로 포기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49분 광주비행장을 이륙해 4분 뒤에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상공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헬기가 떨어졌고 폭발하듯 부서지면서 파편이 주변 상가 등으로 튀어 건물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일대는 광주 신흥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로 아파트, 학교,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인도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치봉기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서울시 동대문구는 오는 28~29일 이틀간 고등과학원에서 '과학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업은 ▲전자로 이뤄진 세상 ▲재미있는 물리 등으로 진행된다.

'관악산 물놀이장' 개장

서울시 관악구 '관악산계곡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19일 개장한다.

자연학습장부터 호수공원 아래까지 약 100m 구간으로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한다.

'희망국악을 듣다' 개최

서울시 강북구가 오는 8월2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순회공연 '희망국악을 듣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17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를 찾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체험관에서 화훼장식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9시 등교추진 말도 안돼"

교총, 일부 교육감 정책 반발 "맞벌이 부부 등 문제 심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하려는 일부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5일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아르면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족 간 아침식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구성원 여건을 도외시한 채 교육청이 등교시간을 일괄 조정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등하교시간 변경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벌써 맞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출퇴근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일각에선 학력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선은기자 mik@metroseoul.co.kr

한국호랑이의 폭포 산책 초복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의 한국호랑이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아래를 산책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남학생 절반 "외모 위해 성형"

서울 남성 청소년 2명 중 1명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펴낸 '2014 통계로 본 서울남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5~19세의 남성 청소년 중 49.4%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16.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7년 같은 질문에는 부정(38.0%)이 긍정(32.4%)보다 많았다.

15세 이상 전체 서울 남성을 보더라도 성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

2007년에는 15세 이상 서울 남성 중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16.8%에 불과했고 55.5%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6%로 할 수 없다는 응답(29.5%)보다 높았다.

/김민준기자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포털·스마트폰도 가능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을 전면 개편해 앞으로 포털에 한 번만 서류를 올리면 입소대기 신청을 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입소대기 신청 외에 어린이집 제출서류 등록, 어린이집 지도 분포도, 보육교사 소통방, 대체교사 지원사업 시스템, 우리동네 보육반장과의 실시간 상담 같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탓에 입소 확률을 높이려는 학부모들이 아동 1명당 어린이집 10개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 우선순위를 증명하려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일일이 챙겨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연간 7억5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현주기자

'세컨드옵션' 2040 직장인에게 인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는 자신의 전문 분야 외 타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키우는 이른바 '세컨드 옵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 병원에서 마취과 3년차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성민하(31)씨는 올해 초 방송대 가정학과 2학년에 편입했다.

마취과와 가정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성씨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약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성 질환과 관계가 깊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영양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항공운항과 졸업 후 비서로 재직 중인 백승희(21)씨는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며 방송대 청소년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2년 전 방송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찾던 중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청소년 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백씨는 "처음에는 자격증 취득이 목표였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사명감도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자격증 목표보다는 사회에서 외면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국어 강사인 원동선(40)씨는 방송대 관광학과와 방송대 대학원 이러닝학과를 동시에 다닌다.

원씨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어 관광학과를 선택했고, 평생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러닝학과를 다니게 됐다"며 "다양한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통합 교과 과정인 논술 지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컨드옵션'을 준비하는 이들은 22개의 다양한 학과와 학원비보다 저렴한 등록금 때문에 방송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

metro Russia

Полицейские и к
моют, стирают и

7000

metro France

Gérard Depardieu va fabriq
vodka bio en Russie

드파르디유 보드카 사업 나서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보드카를 행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그는 도수가 높은 알콜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와인보다 보드카 같은 식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라드 드파르디유는 지난 2013년 프랑스의 부자증세를 피해 러시아로 국적을 바꿔 많은 논란을 낳았다

metro Mexico

ribe, uno de los
entidos en verano

여름휴가는 역시 카리브해

방학을 기점으로 멕시코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다. 멕시코 여름 휴가에 각광받는 멕시코인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는 바다. 특히 카리브해 일대다. 카리브해 지역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 명소다. 푸르고 푸른 바닷가를 따라 호텔과 호화 별장이 늘어서 있고 밤에는 여기저기서 파티가 열린다. 멕시코 관광부는 올여름 휴가 때 약 200만 명의 멕시코인이 카리브해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끈하게 청소해 드립니다"

모델 에이전시 에로틱 가사 도우미 눈길…시간당 20만원에 의상 선택

러시아 노스트바의 한 모델 에이전시가 에로틱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 소속 여성과 남성은 경찰, 간호사 등의 복장을 하고 고객의 집과 사무실을 청소한다.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경호원도 현장에 배치된다.

에로틱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기획한 알렉산드르 고르데예프는 "성인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시간당 서비스 이용료는 7000루블(약 20만원)에서 9000루블(약 26만원)로 상당히 고가지만 이용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에로틱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일반 청소 서비스와 청소 쇼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간호사, 경찰, 카우보이 등 자신이 원하는 도우미의 의상을 고르게 된다.

고르데예프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색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선정적인 서비스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며 "에로틱 가사 도우미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절대 만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고객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우미와 동행하는 건장한 경호원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고르데예프는 이어 "에로틱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누고 말이 많지만 해당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어떠한 법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색시한 의상을 착용한 것 이외에는 평범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와 다르지 않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에로틱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시범 운영 중으로 모델 에이전시 측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는 "모델 에이전시가 정확한 이용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매춘을 조장하는 노골적인 서비스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테포슬라프 가라센코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as ganha

회색 벽 대신 색색 꽃 핀 바뀐 버스정류장

브라질리아 남서부에 거주하는 엘리아나 보레이라(36세)는 오늘도 버스를 기다리던 중 옆에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의 옆을 보니 정말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안타깝게도 실제 꽃은 아니다. 그러나 삭막했던 정류장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된 이용객들은 하나같이 만족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레이라는 "꽃 덕에 국화가 그려진 정류장은 더 예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회색 도시의 버스 정류장에 꽃을 피우게 만든 사람은 바로 크루제이루(Cruzeiru)시의 행정관인 자우두 보르지스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갈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시에는 총 20여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정류장은 이미 식물의 예술품으로 탈바꿈했다. 행정관 보르지스에 따르면 사실 과거에 유성페인트로 정류장 환경을 조성했으나 온도와 습도로 인해 쉽게 오염되곤 했다. 그래서 그는 시내 곳곳의 꽃 사진을 찍어 인쇄한 뒤 정류장 벽면에 붙이기로 결정한 것. 결론적으로 단색의 페인트 보다 화려한 꽃들을 더 마음에 들어 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 난무하고 있는 무단 그래피티로 작품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더 확실한 순찰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작품'을 보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20.30 (+7.42)	558.94 (+3.67)	2.51 (-0.07)	1028.80 (-2.70)

최경환 "추경 이상으로 재정 확장"

성남 새벽시장 찾아 일자리 확충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 인력시장은 위례신도시, 판교 등 수도권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수요를 대체하겠다"며 "추경을 하지 않고도 경기 보강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확장 정도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추경은 17조3000억원으로 '슈퍼 추경'으로 불린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정 확장 정도는 1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에게 불법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납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중동포로 이뤄진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직 건설 일자리를 싹쓸이해 내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호소가 주를 이뤘다.

이날 방문에서 최저가낙찰제, 하도급 문제 등 현장 건의를 수렴한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건설 노동자 쉼터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삼성 '모션싱크' 돌풍

삼성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높은 판매율과 압도적 점유율로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출시 1주년을 맞은 모션싱크는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월 50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중 50만원 이상 프리미엄 청소기의 판매 비중은 매출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약 0.9%에서 모션싱크 출시 이후인 하반기는 약 18%로 상승했다. 이후 올 상반기에는 약 24%까지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모션싱크 출시 후 약 1년간 국내 50만원 이상 프리미엄 진공 청소기 시장은 지난해 5월 전체 진공 청소기 시장의 약 2% 수준에서 올해 5월 약 18%로 9배 이상 성장했다.

모션싱크의 인기 비결은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에 있다. 민첩하게 회전하고 부드럽게 이동해 사용자는 즐거운 청소 경험을 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이상 차단하는 독일산 여과성능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KAF)'와 '영국알레르기협회(BAF)'로부터 안증을 받아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청소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삼성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지난해 6월 출시된 뒤 월 5000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81 142
TEL (02)721-9800, FAX (02)732-156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11
2002년 5월 31일 창간 /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68

기아자 'K7 멤버십 고객 '대관령국제음악제' 초청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30일과 31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스페인의 밤' 공연에 K7 멤버십 고객 30명과 동반 1인 등 60명을 초청한다. /기아차 제공

삼성미소금융, 대출집행 1만건↑

삼성미소금융재단은 17일 출범 5년만에 국내 미소금융 최초로 누적 대출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삼성미소금융은 대출 1만건 돌파를 기념해 김포에 위치한 고객 점포에서 기념식을 갖고, 홍보를 위한 전단 배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삼성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인의 창업과 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까지 3000억원을 출연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출 이후에도 ▲창업 컨설팅 교육 ▲영업 판촉물 지원 ▲계장 환경개선 등 고객성공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미소금융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누적 대출금 1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이번에 누적 대출 건수 1만건을 최초로 돌파하는 등 영세 자영업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하균기자 [illegible]

캐피탈社 사금고화 막는다

신용제공 한도 50%내 · 기업여신금융업 신설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등의 계열이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리스·할부·신기술업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업무범위도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이용자는 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계 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의 범위에서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여신사업자와는 별도로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문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의 신규 진입 경쟁 촉진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업여신금융사가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私)금고화와 계열사 부실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가람기자 [illegible]

불편하면 블루투스가 아니니까

up·beat | LTB2000

전용 컴플라이 폼팁 기본 제공 / 13.2g 초경량 / apt-X 지원
NFC 페어링 / 블루투스 4.0

Lots

친환경 세제 '소금' 활용법

전순이 주부 경제학

아기가 있는 집에선 세제 하나 고르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적은 양이라도 합성세제를 다량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는 먹거리는 물론, 각종 세제에도 친환경·자연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금' 역시 좋은 친환경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더러워진 도마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도마에 음식찌꺼기나 냄새가 배었을 때 굵은 소금으로 싹싹 문질러 주고, 그늘에 소독시켜주면 냄새도 제거되고 얼룩도 없어진다. 요리를 하다가 바닥에 기름을 흘렸다면 소금을 먼저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면 된다. 기름을 많이 흘렸을 때는 2~3번 반복하고, 물걸레로 닦으면 끝.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금을 덮어뒀다가 5분 정도 지나서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비린내는 물론 끈적거림을 없앨 수 있다. 손에 기름 냄새가 배었을 때는 비누로 닦아내는 것보다 소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습기가 많은 곳에 소금을 조금씩 덜어 놓으면 습기를 제거해 준다. 주방 싱크대나 선반 등에 한줌씩 덜어 놓으면 간편하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소금은 청소할 때도 꽤 유용하다. 막힌 하수구 청소에도 소금이 사용된다. 굵은 소금 한줌을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다. 세탁을 할 때는 표백제를 대신해 옷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거나 염색 시 사용하면 좋다. 세탁할 때는 20% 농도의 소금물에 20~30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면 옷감이 상하는 것을 막아 세탁물의 염색물이 빠지지 않게 된다.

욕실을 청소하다 보면, 제일 난감한 게 타일 바닥 청소다. 틈새마다 물때가 끼어서 아무리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다. 이럴 땐 굵은 소금을 듬뿍 뿌려서 솔로 문질러 주면 물때가 제거되고 타일도 반짝반짝해 진다. 이 밖에 개미가 많이 모이는 부엌에서는 개미가 다니는 장소의 한쪽 구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개미가 없어진다.

/양난희 기자 mnal@

LTV 60% 넘는 주택대출 60조

금융권 "은행 초과대출 아닌 집값하락이 원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는 담보가치(집값)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000억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지기자 ein1@metroseoul.co.kr

8월 아파트 입주 2만7천가구

8월은 전월(1만9540가구)대비 40.4%(7888가구) 증가한 전국 2만7428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대비 163.1% 급증한 1만1232가구가, 지방은 전월대비 6.1% 증가한 1만6196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8월 입주시장은 올해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던 6월(3만5171가구) 다음으로 물량이 풍성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8월은 이사비수기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은 반면 방학 시즌을 준비하는 학군수요로 인해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었었다. 하지만 올해 8월은 직전 3년 동기간 평균 물량(1만1924가구)과 비교해 130% 급증한 2만7428가구가 공급된다. 늘어난 물량만큼 새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져 임차 매물을 찾기가 다소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총 1만123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은 매머드급 단지 '답십리래미안위브' 재건축(2652가구)와 '서초포레스타1단지'(1649가구) 등 총 470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5674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 중 공공물량은 경기 입주물량의 74%를 차지한다. 시흥은계보금자리S-4단지, 수원호매실보금자리 B1, A6, '하남미사보금자리A7' 등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공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 외 고양시 식사동 '일산선영유앤빌'과 남양주시 화도읍 '탑립미소가'에서도 입주자를 맞는다. 인천은 공공분양 물량인 '인천서창2(6B)' 85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방은 1만6196가구로 전월 대비(1만5271가구) 925가구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경남은 지방 입주물량 중 27%(4415가구)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입주자를 맞는다. 거제 아주e편한세상1·2단지(1217가구), 김해부원역푸르지오(915가구) 등 입주 규모가 상당하다. 세종시에서는 매머드급 단지인 세종시푸르지오(1-2생활권M3) 1970가구와 세종시제일풍경채에듀파크 에서 총 2406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외 지방 도시별 총입주물량은 ▲부산(2167가구) ▲충남(1440가구) ▲광주(1390가구) ▲대전(1236가구) ▲전북(1182가구) ▲전남(818가구) ▲대구(774가구) ▲광주(378가구) 순이다.

/김두탁기자 kimdt@

코스피 연중 최고점 경신 코스피가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개월여 만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업자도 골드바 공급

KRX금시장, 대량매매 브랜드 다양화로 활성화

오는 9월부터 유통업자도 금지금(골드바)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원인 실물사업자간 대량매매가 가능해지며 수입금 리스트도 확대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거래 활성화와 실물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유통업을 한 사람은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간 금지금은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만 공급할 수 있었다.

단 적격생산업자와 금지금에 대한 공급 또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량거래 수요를 위한 '협의대량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가격 이내에서 가능하며 수량은 5kg 이상이다.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입금 목록도 확대된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금 브랜드는 19종이지만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선호도가 높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선호하는 수입금 브랜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과 수입금 목록 확대 방안은 9월에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협의대량매매는 전산망 교체 등의 문제로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아란기자 sarah@

'수출 힘든데 중국산 범람'… 철강업계 '이중고'

현대제철·동부제강, 中업체 제소…시장 교란 주범 지목

국내 철강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17일 한국철강협회와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철강재 수입량은 1121만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다.

이중 중국산은 656만톤으로 31.0% 급증했다.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은 작년 상반기 51.5%에서 올해 상반기 58.4%로 커졌다.

중국산의 무기는 싼 가격이다. 같은 기간에 톤당 수입가격이 789달러에서 738달러로 떨어졌다.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을 유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최근 중국 H형강 제조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층빌딩이나 교량, 노로 등의 뼈대로 쓰이는 H형강은 상반기 중국에서 41만톤 수입됐다. 작년 동기보다 27.4%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중국산 H형강의 유통가격은 톤당 59만원으로 국산 77만원보다 18만원 싸다. 중국산은 1년 전보다 6만원 떨어졌고 국산과 가격 차이도 당시 16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중국산은 값이 싼 만큼 질도 낮은데다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은 자사의 롤마크(Roll Mark: 알파벳으로 표시된 원산지 제조사)가 찍힌 중국산 철근 2000톤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한 수입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주 철강협회 주관으로 열린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질 낮은 철강재의 사용을 막도록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반대로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으로 국내 철강의 주요 수입국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원유·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인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가 의회의 정치적 압력을 못 이겨 종전의 무혐의 예비판정을 뒤집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같은 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만의 강철 못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의 상반기 미국에 수출한 철강재는 261만톤으로 55.9% 급증했다. 수출액은 23억7000만 달러로 44.3% 늘어났다.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같은 에너지 개발 붐으로 철강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다.

그러니 미 철강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미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입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판정이 나오자 바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

캐나다는 지난달부터 한국, 중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덤핑과 해당 국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4월 한국산 평판 압연 제품에 최고 49.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공격적인 설비 확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는데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um1@metroseoul.co.kr

휴플러스, 왕파 100원에 17일 서울 휴플러스 월동프라자에서 모델들이 '100원 왕파'를 선보이고 있다. /휴플러스 제공

적합업종제, 中企 성장 가로막아

전경련, 성장·수익·경쟁력 확보에 도움 안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中企 적합업종 제도'가 성장성, 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명지대 빈기범 우석진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CAPEX(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감소시키는 등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것으로 적시됐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도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된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됐다.

16.6
3.9
14.4
4.5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적합업종 지정 전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ROA는 3.8%에서 3.7%로, ROE는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둔화됐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됐고, ROA는 2.8%에서 3.2%, ROE는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했다.

빈기범 교수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 경영실적간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을 각각 5.9%p, 7.1%p 감소시키고, 매출액증가율도 0.6%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kact@

아마존, 만원에 e북 60만권 서비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 아마존이 또 한번 파격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 달에 1만원을 내면 60만권의 전자책(e북)을 무제한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한국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킨들 언리미티드'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책을 소장하는 방식이 아닌 일종의 대여 형식이다.

'해리포터'와 같은 인기 소설을 위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펭귄랜덤과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번 서비스는 장르소설과 같은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존의 월정액 1만원 서비스 '킨들 언리미티드'

/박성훈기자

SK텔레콤, 음성·문자 무제한 청소년 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이 음성·문자 무제한 청소년 요금제 'T끼리 팅' 6종을 출시했다.

SK텔레콤은 망내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데이터 이용량을 절반만 차감하는 18세 이하 청소년 전용 요금제 3G·LTE 'T끼리 팅 35·45·55' 6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요금제 중 음성·문자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T끼리 팅'이 업계 최초다. 기존에 출시된 이통 3사의 청소년 요금제는 정액 내에서 음성·문자·데이터를 조절해 사용하고, 한도 소진 시 서비스가 차단되는 구조였다.

SK텔레콤은 청소년 고객들의 음성·데이터·문자 서비스 이용량이 1년 전 대비 평균 약 20%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재규어, 9월 데뷔 스포츠 세단 XE 기술공개

재규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XE에 적용될 첨단 기술을 공개했다.

현지시각으로 15일 공개된 첨단 기술은 재규어가 새로 개발한 전·후륜 서스펜션, 전동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시스템, 전 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등 네가지다.

신기술이 적용된 XE는 짜릿한 퍼포먼스, 민첩한 핸들링, 정확하고 빠른 스티어링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XE의 전륜-후륜 서스펜션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자체 경량화를 이뤄냈다. 더블 위시본 방식의 전륜 서스펜션은 F타입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설계돼 XFR 수준의 감성을 갖추고 있다.

인테그럴 링크(Integral Link) 후륜 서스펜션은 측면과 상하의 감성을 제공해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유지하면서도 날카로운 반응과 민첩한 핸들링을 완성했다는 게 재규어 측의 설명이다.

조향감은 최신 전동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으로 한 단계 진보시켰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존 유압식 시스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조율이 가능해 조향감을 전달한다.

후륜 구동 방식의 XE의 드라이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규어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을 개발했다. ASPC 시스템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오프로드 트랙션 기술을 적용시켜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글로벌 전략 차종인 XE는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특징을 극대화하고 재규어가 개발한 새로운 인제니움 엔진과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를 탑재해 효율성까지 높여 C/D 세그먼트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재규어 XE의 글로벌 데뷔 무대는 오는 9월 8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성재기자 fanta@

에너지 신사업 일자리 1만개 창출

산업부, 6개 사업 발굴…2017년 2조800억 시장 창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개의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했다.

6개 신산업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사업이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은 전기 사용이 많은 시설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통합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 투자의 사업성 분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금융이나 보험 상품과 연계된다. 아파트 주차장 조명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러지만 이를 제3자로 융통해 주고 향후 아파트 측이 절약한 전기값으로 이자를 갚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 사례로 꼽힌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섬 지역에서 전력공급을 위해 비싼 값으로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대체해주는 내용이다.

태양광 렌탈사업은 정수기 임대 사업처럼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택시사업이나 렌터카 등 전기차를 이용한 서비스업체에 유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에너지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600대 확충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신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양한 선택형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 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기업들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하고 무역보험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ksc@metroseoul.co.kr

보급형 스마트폰 'G3 비트' 출시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LG G3'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한 보급형 스마트폰 'LG G3 비트(Beat)'를 18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제공

현대, 로지스틱스 지분 판다

6천억 현금 확보…자구계획 80% 달성

현대그룹이 물류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을 매각한다.

현대그룹은 17일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88.8% 전량을 60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상선 47.67%, 현대글로벌 24.36%, 현정은 회장 등 13.43%, 현대증권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은 현대그룹과 오릭스가 SPC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현대로지스틱스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설 SPC는 오릭스가 지분금의 70%인 2400억원을 투자하고, 30%가량인 1000억원은 현대상선이 출자한다.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가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9.99%를 매입한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 등이 이 지분을 매입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이번 지분매각으로 6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구안 대부분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3조3000억원의 선제적 자구안을 발표한 이후 LNG운송사업 부문 매각, 신한KB금융지주 등 보유주식 매각, 외자 유치 등을 통해 6개월간 2조7000억원을 마련해 자구안의 80% 이상을 달성했다.

/김태균기자

기아차·모두투어 채용공고 20만 이상 봤다

사람인 조회수 분석

기아자동차의 채용공고가 올 상반기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상반기에 등록된 채용공고 중 조회수 상위 100개를 분석한 결과, 기아자동차의 '대졸 신입사원 상시지원'이 26만6159회로 1위에 올랐다. 모두투어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21만7092회), BGF리테일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20만2106회)도 20만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화그룹의 '상반기 공채 모집'(18만9472회), 현대다이모스의 '상반기 경력·신입사원 모집'(18만6013회), SK그룹의 '상반기 SK 신입 인턴 모집'(17만1561회), 동부그룹의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모집'(16만4957회)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현대자동차의 '신입 상시 공개채용(대졸 인턴)'(15만2699회), CJ그룹의 '상반기 대졸신입 인턴 전역(예정)장교 모집'(15만262회), LG유플러스의 '상반기 신입 인턴사원 모집'(14만82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1일 평균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공고는 삼성그룹의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2만9047회)이 차지했다. 한화그룹의 '상반기 공채 모집'(1만7225회), LG유플러스의 '상반기 신입 인턴사원 모집'(1만6472회), 한국전력공사의 '신입공채-청년인턴 모집'(1만3983회), 롯데그룹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1만3553회) 등도 상위에 올랐다.

/이국명기자 kmlee@

여름 휴가철, 모바일 내비가 뜬다

이통사, 네트워크 기반 차별화 서비스 '눈길'

차량용 내비게이션 비켜라.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나간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통신3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사용 부담이 줄어들었고, 차량 내장 내비게이션과 달리 길 안내뿐 아니라 인근 휴게소 위치, 대중교통 정보까지 알려주는 등 기능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와 교통 정보 빅데이터로 모바일 내비게이션은 통신3사 대표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가 아닌 타사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은 잠재 가입 고객 확보로 이어진다.

SK플래닛 'T맵'은 SK텔레콤의 업계 1위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입자 1700만명, 월 이용자 75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T맵은 버전 4.4를 선보여 자주 가는 경로 설정, 대중교통 정보 제공한 주유소 검색, 출발 시간 추천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주말과 휴가철, 명절 등 시기별·계절별 여행 정보나 차량관리 방법 등도 제공한다. SK플래닛은 바캉스 시즌을 맞아 이번달 27일까지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로 길 안내를 하는 스타 음성 무료 이벤트 등을 벌인다.

KT의 '올레내비'는 지난 10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제휴를 통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외국어명 점포, 복잡한 아파트 이름 등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찾기 어려운 위치 정보의 검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각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휴가철 안전한 귀경, 귀성길을 책임진다. /KT 제공

또 올레내비는 검색된 최단 경로 중 최저가 주유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KT의 U클라우드 서비스 연동을 통해 사고 발생 해당 영상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블랙박스 기능'도 지원해 안전한 여행길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KT도 여름 휴가철을 기념해 '황금주유권을 찾아라' 이벤트를 27일까지 연다. 올레내비와 타사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목적지 검색을 비교해 어느 한 곳에만 검색되는 장소를 찾아 인증샷을 찍어 보내면 응모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5만원 주유권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U+내비 리얼(Real)'을 통해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한 번 내려받은 지도정보는 단말기의 메모리(캐쉬)에 저장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도착알리미' 기능은 'U+내비 리얼'에서만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설정된 시간 단위로 운전자의 현재위치와 도착예정시간을 등록된 스마트폰에 문자로 알려준다. 이밖에 3D 입체 지도로 실제 건물과 흡사한 이미지를 제공해 길 찾기도 용이하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통3사 "데이터 트래픽, 걱정마세요"

이동통신3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트래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30일까지를 휴가철 특별 소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해수욕장,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 750여 주요 지역에 기지국 용량을 늘리고 이동 기지국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태풍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기지국 점검 등 안전 점검도 시행했다.

또 비상 상황실에 매일 350여명의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국 해수욕장을 비롯해 국립공원, 레저타운, 놀이동산, 유원지, 골프장 등의 통화·데이터 추이를 분석해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화량과 데이터 소통 대비를 위한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

LTE의 경우 휴가철에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휴가지에서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해 소형 기지국(RRH)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동해안의 경우 50여 해수욕장의 품질 테스트를 완료하고 중계기를 추가 설치했으며 기존 기지국에는 가입자 용량을 늘리는 채널카드를 추가 증설했다.

휴가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동기지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통화품질 저하와 장애 발생에 대비해 긴급대기조를 2배 이상 증원한 상황이다.

반면 KT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최근 월드컵에 대비해 이미 전국에 기지국을 충분히 증설했고 최적화를 끝내 휴가철 원활한 통화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jjw0415@

어린이 안전 등하교 걱정마세요! KT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U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T 제공

'5색 앱'으로 2배 즐거운 휴가를!

많은 이들이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다. 여행은 신이 나지만 따분할 수도 있는 여행길, 스마트폰 앱으로 분위기를 업 시킬 수도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관광·여행정보 서비스 앱이다. 다수의 여행전문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자원과 문화를 샅샅이 취재해 약 3만여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를 담았다. 여행장소는 풍경 및 계절, 영화, 레포츠 등으로 분류돼 취향에 맞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행지를 정해 놓고 보니 가는 길을 모른다면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사용하면 간편하다. 신속하고 빠른 길 안내는 물론 약 5~10분 간격의 실시간 교통정보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준다.

차 안에서 장시간 여행으로 지쳐 있다면 '썸플레이' 앱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썸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노래를 MR 변환해주는 노래방 앱이다. 최신곡, 트로트, 동요 등 휴대전화에 있는 곡이라면 무엇이든 무료로 MR 변환해 노래녹음까지 가능하다.

여행지에 도착했다면 사진은 필수. 예쁘고 아기자기한 사진을 갖고 싶다면 '캔디카메라' 앱을 추천한다. 실시간 감성 필터, 뷰티기능, 다양한 데코 기능이 있어 터치 한번으로 여행 사진을 특별하게 꾸밀 수 있다.

동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는 여름휴가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 PC에서나 되던 다양한 편집기능을 스마트폰에 옮겼다. 여행지에서 찍은 여러 동영상과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하고 여기에 테마, 음악,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효과를 더해 특별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재영기자

kt금호렌터카, 뽀로로·타요 캐릭터 확대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이어 내륙에서도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 렌터카를 운영한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뽀로로 렌터카(K5)' 3대와 '타요 렌터카(카니발)' 3대는 현재 kt금호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대여할 수 있다.

kt금호렌터카는 제주지역 캐릭터 렌터카 인기에 힘입어 가족단위 여행이 많은 여수와 경주지점에 캐릭터 렌터카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스타렉스 차량에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로 꾸며진 캐릭터 렌터카는 여수와 경주지점에 각 2대씩 배치된다.

캐릭터 렌터카 사전예약은 kt금호렌터카 홈페이지(www.ktkumhorent.com) 및 콜센터(1588-1230)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ksupl@

日 상장 라인, 모바일게임 빅뱅 이끌까?

5억 가입자 노출로 인지도 상승
완성도 높은 국산게임 속속 입성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도쿄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바일게임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라인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기본으로 무료 음성통화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모바일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이 일본에 상장되면 네이버와 라인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부자금 유치, 모회사인 네이버의 주가 상승 등이 예상된다.

특히 라인에 장착된 40종의 모바일게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 미국 증시에도 상장될 예정인 만큼 '라인발 모바일게임'의 인기는 지구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라인게임은 다양한 국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라인 쿠키런'은 대만, 태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선보인 '라인 렛츠고 리치(모두의 마블)'는 태국에서 판매 1위에 올랐다.

일본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던 라인이 동남아 시장으로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순위 1~6위를 라인 게임이 석권할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많다.

라인의 미래가 밝다는 점에서 모바일게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라인의 가입자는 7월 현재 5억명으로 추산되고 월 액티브 이용자는 2억명이다. 새로운 모바일게임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완벽'에 가깝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통신 네트워크 환경도 개선되고 있어 라인 사용자와 라인게임 유저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까지 이를 주목하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의 CJ넷마블과 같은 게임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도 콘텐츠가 좋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낳은 라인에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한국 모바일 게임이 대거 장착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고'를 크게 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임 제작에 일가견이 있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un@metroseoul.co.kr

롤 '입문 봇' '초토화 봇' 도입

몬스터 등장 알리는 정글타이머

라이엇 게임즈의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는 최신 패치에서 새 게임 모드 2종과 정글타이머 기능을 17일 공개했다.

'입문 봇 모드'는 처음 롤을 접하는 플레이어들이 쉽게 게임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게임 형태다.

플레이어가 컴퓨터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AI(인공지능) 상대 대전'의 새로운 단계이며 단순히 컴퓨터의 인공지능 수준이 입문자에 맞춰 조정된 것 외에도 많은 기능이 추가됐다.

컴퓨터가 주는 피해량을 낮추고 행동 방식을 바꿨으며 플레이어가 사망해 있는 시간을 줄여 실수했을 때의 손실을 낮췄다. 또 달성 가능한 목표가 개인별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플레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의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 플레이어를 위해 세세한 요소들이 조정돼 여전히 롤을 어렵게 느꼈던 플레이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숙련된 플레이어를 위해 준비된 '초토화 봇 모드'도 눈길을 끈다. 18일부터 28일까지 한정 기간 공개되는 특별 게임 모드다.

숙련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정도로 기술의 능력치가 대폭 상승된 챔피언들을 상대하는 게임 모드다. 이 모드에서는 'AI(인공지능)'가 조종하는 챔피언들의 스킬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해진다.

한편 이번 패치에서는 '정글 타이머'가 최초로 공개됐다. 정글 타이머는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립 몬스터들의 다음 생성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 표시이며 플레이 화면 상단에 뜬다.

/박성훈기자

'테일즈런너' 9주년 어드벤쳐 업데이트

아프리카TV는 17일 온라인 액션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캐릭터 '시호', 신규 동화맵 1종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신규 맵 2종을 추가해 재미 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저들의 호응 속에 예약 판매된 캐릭터 '시호'는 18번째로 추가되는 신규 캐릭터. 관도리 유적지를 지키는 수호신장의 후계자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신규 맵은 '미지의 섬으로', '관도리 유적지', '설산의 주인'으로 구성되며 유저는 자유로운 배틀과 슬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아프리카TV는 8월31일까지 9주년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기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 연금수리, 무료 펫 부활의 혜택을 제공하며 7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접속하면 원하는 캐릭터와 캐시를 선물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날 온라인' 에이수스 그래픽카드 제휴

온라인 포털 아이엠아이는 17일 글로벌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 업체 에이수스 코리아와 무협 액션게임 '날 온라인'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이번 프로모션에서 '날 온라인 ASUS 패키지'를 선보인다.

그래픽카드 시리즈('ASUS GTX750 Ti OC 2G D5', 'ASUS GTX750 PH OC 1G D5', 'ASUS GTX650 ECO OC 1G D5') 및 메인보드(ASUS Z97-K) 등으로 구성된 제품 구매 시 '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캐시(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날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13일까지 게임 접속 일수에 따라 추첨으로 총 33명에게 ASUS Z97-K 메인보드, ASUS GTX750 PH OC 그래픽카드, ASUS 티셔츠 등을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 게임에 접속한 유저 전원에게 자신의 캐릭터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ASUS 그래픽카드' 아이템을 선물한다.

/박성훈기자

신라스테이, '다이나믹 서머' 패키지 선봬

캐리비안베이·에버랜드 함께 즐길 수 있어

호텔신라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인 신라스테이 동탄에서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 서머(Dynamic Summer)'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캐리비안 베이 패키지권 2매 ▲서머 비치 타올로 구성돼 있다. 캐리비안 베이 패키지권에는 ▲캐리비안 베이 입장권 ▲구명조끼 대여 ▲스낵 교환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포함돼 있어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햇빛이 뜨거운 낮에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시원한 여름 밤에는 에버랜드에서 신나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후 호텔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패키지다. 1박 2일 여름휴가를 위해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패키지 고객에 한해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제주산 애플망고를 올린 호텔신라의 시그니처 메뉴 '애플망고 빙수'를 추가 요금을 통해 맛볼 수 있다. 7~8월 주말(금~토·일요일)과 여름휴가 시즌인 오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19만9000원에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은 별도이며 기타 기간은 호텔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는 서머 에디션(Summer Edition) 패키지와 서머 디어님(Summer Dinner) 패키지도 함께 판매한다. 서머 에디션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서머 비치 타올로 구성됐다. 주말(금·토·일요일)과 휴가시즌(7월 25일~8월 17일)에는 18만원, 주중(월~목)에는 23만원이다. 서머 디어님 패키지는 ▲객실 1박 ▲아사히 생맥주를 제공하는 석식 뷔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를 포함하며 주말(금·토·일요일)과 휴가시즌(7월 25일~8월 17일) 24만원, 주중(월~목) 29만원이다.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어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며 도심 가까이서 여름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장소다. 특히 서해안의 섬 제부도와 국화도까지는 1시간3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오는 10월에 2호점인 역삼점을 오픈한다. 신라스테이 역삼점은 서울 강남의 비즈니스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코엑스몰, 강남역·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가까워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좋다. 신라스테이는 2016년까지 제주, 서대문, 울산, 광화문 등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예약 및 문의 02)2230-3000

/정해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로벤타 '리스펙트 무빙에어 헤어드라이기', 테팔 '클릭앤테이스트 미니 유리 믹서기', 필립스 '핸디형 스팀 다리미 스팀앤고'(왼쪽부터)

직장인 위한 '스피드 가전' 인기

무빙 드라이기·스탠드 다리미 스마트한 기능으로 시간 단축

젖은 머리 말리고, 구겨진 옷 다리고…

매일 아침 직장인들은 출근 준비로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지치기 마련. 최근 바쁜 아침 직장인들을 위한 '스피드 가전'이 속속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한 기능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기, 미니 믹서기, 다리미 등이다.

아침마다 머리 손질하는데 가장 긴 시간을 투자했던 직장인 최미정(28)씨는 로벤타 '리스펙트 무빙에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부터 10분간의 꿀잠을 더 잔다.

이 제품은 손목을 흔들지 않고도 바람을 넓고 고르게 분사해주는 자동 '무빙 에어' 기능을 탑재해 젖은 머리를 빠르게 말려준다. 또한 고온의 바람이 한 부위에만 집중되지 않아 머리결이 상하지 않는다.

바쁘다고 아침을 거르면 몸이 축나기 쉽다. 간단한 아채 주스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테팔 '클릭앤테이스트 미니 유리 믹서기'는 국내 최초의 미니 유리 믹서기로 적은 양의 주스를 만들어 바로 마실 수 있다.

특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용기와 칼날이 분리돼 사용과 세척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구겨진 옷은 스타일을 망가뜨린다. 필립스는 시간에 쫓기는 아침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옷을 다릴 수 있는 핸디형 스팀다리미 '스팀앤고'를 선보였다. 45초의 빠른 예열 시간 내에 분당 최대 20g의 강력한 연속 스팀을 분사하며 구김을 완벽하게 펴준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이화의료원, '김포공항의원' 진료 시작

전문 의료진 배치… 상급종합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김포국제공항의원'을 정식으로 개소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의원은 의료원과 한국공항공사 간의 협정에 따라 마련된 것. 의료원은 의료진을 파견하고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시설, 부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의원은 진료실, 주사실·처치실 등을 갖추고 있고 이대목동병원에서 파견된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응급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은 "공항 이용객과 상주 직원들에게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외에도 공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은 공항 국제선 청사 4층에 있으며 개소식은 지난 15일 열렸다.

/황재용기자

산들건강, 신상품 출시 이벤트

톳 농축액을 제품으로 만든 '대한민국 톳' 도 출시

호흡기 질환에 좋은 '산들 통쾌고'로 유명한 산들건강(www.sandle.co.kr)이 신상품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회사의 대표 제품인 산들 통쾌고 500g 박스와 신상품(도라지통쾌고·홍도라지통쾌고·삼통쾌고) 500g 리필용 제품을 30%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대한민국 톳' 제품도 선보였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에는 우유보다 16배 많은 칼슘과 550배에 이르는 철분이 함유돼 있다. 아연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병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에 회사는 톳을 농축액으로 담아 제품을 출시했다. 문의 본사 02)778-4568·강남점 02)599-7767·중구점 070)4266-5000

/황재용기자

유니레버 도브 '뷰티피시' 영상/유니레버 도브 제공

바이럴 영상으로 소통하는 기업

감동·유머 코드로 눈길

여러 기업들이 TV CF 외에 '바이럴 영상'을 따로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소통하고 있다.

바이럴 영상이란 기업이 홍보를 목적으로 브랜드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짧은 영상으로 네티즌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영상을 말한다. 이 영상은 함축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진정성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바이럴 영상들이 눈에 띈다.

유니레버 도브의 리얼뷰티 스케치 영상은 몽타주 전문가가 여성 스스로가 묘사하는 설명만을 듣고 첫 번째 몽타주를 그린 후 두 번째 몽타주는 다른 사람이 같은 여성을 설명하는 대로 그려 비교하는 실험을 담았다. 본인이 직접 묘사한 얼굴이 제3자가 설명한 모습보다 저평가됐다는 것을 통해 진짜 아름다움이란 긍정적인 자아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영상은 소비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지난해 유튜브 AD 영상 중 최고 뷰를 기록하고 칸느 그랑프리 상을 수상했다.

KIA 자동차의 올 뉴 카니발은 일상에 지친 회사원들이 독진 상사에 응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았다. 3분16초 짜리 영상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관심도와 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물으며 가족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감동을 준다. /[illegible]

카페베네, 양주에 전략기지 신축

카페베네(대표 김선권·사진)는 17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서 글로벌 로스팅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곳은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을 1만개로 확대한다는 '글로벌 커피로드 2020' 전략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 세계 4000개 매장에 원두를 수출하며 한국 커피 수출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양주 공장에는 열풍식 드럼 로스터로 구성된 자동 제어식 로스팅 플랜트가 구축됐고 항온항습 시설을 도입한 600평 규모의 생두창고도 확보했다. 이로써 연간 최대 7738톤의 원두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매일 약 150만 잔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는 "이미 동남아시아 권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태다"라며 "이미 말레이시아에서는 평당 매출이 스타벅스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문제는 미주 지역인데 지속적인 매장 리뉴얼 작업과 메뉴 개선을 통해 현지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려 노력 중"이라며 "2016년 개봉 예정인 슈퍼맨과 배트맨 영화의 협찬 계약을 완료했다. 영화의 장면에 카페베네 매장이 노출될 예정인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3년 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신민아, '처음처럼' 모델

배우 신민아가 '처음처럼'의 단독 모델로 선정됐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17일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CF 화보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신민아와 '처음처럼' 신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명림기자

삼계탕과 궁합 저칼로리 음료 출시

보양식 먹을때 소화 돕고 개운함 느껴져

18일은 초복이다. 복날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로 기력 보충을 위한 삼계탕 등 보양식의 소비가 가장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계탕의 열량은 1인분에 900kcal이 넘는 등 대부분의 보양식은 고칼로리의 음식이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료는 콜라이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콜라는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료이지만 하이트진로음료의 '이다 화이버 콜라'는 한 병(500ml) 당 28kcal의 무당류 콜라이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중성지방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양상추 한 포기 분량(5.3g)이 들어 있다.

보다 깔끔한 맛의 탄산을 선호한다면 탄산수가 좋다.

탄산수는 소화 촉진은 물론 체내 독소 제거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기름진 보양식과 즐기기에 제격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탄산수 '디아망'은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탄산수이다. 최근 용량을 330ml에서 500ml로 늘린 페트(PET) 패키지 제품이 출시돼 간편하고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

식사 후에 가볍게 청량감을 느끼고 싶다면 저칼로리 탄산음료가 제격이다. 광동제약은 식후 음료 콘셉트의 저칼로리 음료로 '뷰룻 스파클링타임 플레인'과 '뷰룻 스파클링타임 레몬' 2종을 출시했다. '뷰룻 스파클링타임 플레인'은 L-카르니틴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콜라겐 등이 들어있는 제로 칼로리의 탄산음료이다. '뷰룻 스파클링타임 레몬'은 6kcal의 저칼로리 탄산음료이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식후에 즐기기 좋은 음료다. 그 중 우엉차는 체내에 쌓인 나쁜 성분들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준다. 티젠의 '우엉차'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티백 형태의 제품이다. /[illegible]

하이트진로음료 이다 화이버 콜라 · 디아망 · 티젠 우엉차 · 광동제약 뷰룻 스파클링타임(왼쪽부터)

위드미 대표 "자체 브랜드·수입상품 비중 50%로"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를 앞세워 편의점 업계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조두일 위드미에프에스 대표는 17일 오전 신세계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사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점포 1000개를 목표로 하겠다"며 "올해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회사의 가맹점 중 300개가 위드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두일 위드미 대표가 향후 점포 운영 등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제공

▲올해 안에 1000개 점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다소 높은 목표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가맹점 중에서 약 300개, 인프라적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독립형 프랜차이즈들 중 300개, 신규출점 200~300개 등을 합쳐 총 1000개 점포 확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손익분기점은 몇 개 점포로 예상하며 그 달성 시기는 언제 쯤인가?

-일반적인 편의점업의 손익분기점은 1000개지만 우리 모델의 경우 2500개 점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은 3~4년 후에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포가 8000개씩 있어도 연간 3% 수익밖에 나지 않는데 위드미의 예상 수익 수준은?

-위드미의 저수익 구조로 3%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 2.5%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가맹 해지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공언했는데?

-점포를 열 때 들어간 총 투자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잔존가를 추정한다. 이 잔존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타사처럼 점포 운영 중단 시 사라지는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인기 점포의 경우 5년 계약이 종료되면 각 회사의 치열한 유치 경쟁 때문에 로열티를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상생 모델만으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편의점 업계의 점주 40%는 월 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다. 그런 점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계약 연장시에도 35%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위드미의 타깃은 가계 수익이 절대적으로 낮은 점주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출이 높은 점포라고 해도 장려금은 주지 않을 것이다.

▲경쟁사의 경우 점포마다 인테리어 진열 등을 매뉴얼화해 표준화하고 미스터리 쇼퍼 등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는데?

-경쟁사처럼 본부가 직접 나서 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위드미는 경영주가 스스로 노력해 진정한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자율적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좋은 점포에 대해 그 점포만의 이벤트를 열어주는 등 경영주 스스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피코크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통한 차별화된 자체브랜드 상품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자체브랜드 상품은 약 7%인데 위드미는 자체브랜드 상품과 수입 상품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갖추겠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슈퍼는 식료품을 파는 데 집중하고 편의점은 일상생활용품을 함께 팔기 때문에 일종 간의 겹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llegible] 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 … 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 늘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해지 하는 년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씩씩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내년도 봄부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하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이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허혜경씨(61세, 용산구)는 작년 조,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허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대기업 연구원 서승렬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주변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때가 바뀌고 제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이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경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비밀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비밀 관리

2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가연 삼성카드 출시

- 행사기간 : 2014년 3월 [illegible] ~ 12월 31일
- 가연결혼정보 신용결제 20% 할인
- 가연 회원 결제 200만원 이상 결제 시 [illegible]

(행기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선호 [illegible]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획득하고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빌딩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시킨 '가연타워'를 지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가연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인연을 찾는 일이죠"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은 '행복한 결혼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며, 결혼정보회사는 노력의 부분을 맡은' 이라고 말한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찾는 분들부터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illegible]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 [illegible].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 [illegible]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illegible] 결혼 [illegible] 도움을 얻고자 하 [illegible]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일반 직장인부터 전문직, 공무원 등 결혼정보회사 역시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직업 좋고 연봉 높은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찾는 만큼 꼭 그렇게 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우

▲ 가연결혼정보(주) 박영빈 팀장

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결혼정보회사의 존재 이유는 회원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회원님께 꼭 맞는 배우자를 찾아 연결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삶과 가정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성혼 커플들을 볼 때마다 커플매니저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결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 [illegible]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illegible] 커플매니저가 도움을 드리 [illegible] 주비가 되고 노력 [illegible]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illegible] 결혼 [illegible] 분명 [illegible]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 [illegible].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유럽의 낭만에 빠지는 시간…

화제의 책

유럽로드

차백성/동녘나무

넥타이와 컴퓨터, 그리고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잡은 것은 자전거 핸들이다. 그렇게 시작된 100일 동안의 유럽여행이라 그런지 저자는 길 위의 낭만을 즐기며 여행을 시작했다.

첫 여행지인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터키가 우리와 '형제의 나라'가 된 이유를 오랜 역사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내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잘 알려진 문호 카잔차키스의 흔적을 찾아 크레타섬을 달렸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를 구석구석 돌며 벅찬 감동을 느꼈고 프랑스에서는 알퐁스 도데를 생각하며 별을 바라봤다.

여기에 책에는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찰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세월이 가면서 잊고 있던 아련한 향수와 추억도 담겨 있다. 단순히 여행지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여행서가 아닌 참된 여행의 의미와 인생의 숙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 저자는 강조한다. 자전거 여행의 묘미는 보고 듣고 담고 싶은 것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진지한 사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황재용기자

아이와 함께 떠나는 박물관 여행

교육과 재미 둘 다 잡을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와 함께 가 볼 만한 곳을 찾는 부모들이 많다. 어릴 때 교육과 재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박물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압축해놓은 공간으로 인문학의 정수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다.

이 책은 전국 1000여 개의 박물관 중에서도 아이가 즐겁게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101곳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국립박물관 ▲자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우리 역사를 다루는 역사박물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시장 일쇠 싸장면 등 독특한 주제의 이색박물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직업박물관 등 총 11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 자녀에게 맞는 박물관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아이와 함께 꼭 가봐야 할 박물관 여행 101

김지혜/꿈의뜨락

저자는 '생각 발산하기' 코너를 통해 전시 관람 때 아이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부모들의 교육을 돕는다. 또 대표 유물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동선을 안내해 관람 순서를 계획해볼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뀐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을 보인다. 따라서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보라고 손짓한다.

박물관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오감을 활용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악기를 두드려 볼 수 있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유리 공예를 직접 해보는 '유리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곳도 많다. 올 여름 아이와 함께 박물관으로 시원하면서도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자.

/정혜은기자 hlune0404@metroseoul.co.kr

산을 지키는 수호신 폭포

오랜 인고의 시간이 흘러 지금의 모습을 갖춘 폭포는 그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산과 함께 여생을 보내며 그 산의 슬픔과 사연을 담았고 사람들의 애환도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숲길과 계곡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폭포의 작은 물보라기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영남 알프스 폭포 기행'(원희음/감오산방) 중- /황재용기자 hanu98@

레일크루즈 '해랑'… 고품격 기차여행!

코레일관광개발, 바캉스 특별 코스 운행

국내 최초의 호텔식 관광전용 열차인 레일크루즈 '해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리뉴얼을 마치고 해랑 2호의 운행을 재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다음 달부터는 스위트룸까지 겸비한 해랑 1호의 운행이 다시 시작된다.

이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식 음료 및 와인 서비스, 승무원들의 마술 연주 등의 이벤트를 통해 여행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중순부터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코스 외에 해운대 요트 투어 등이 포함된 바캉스 특별 코스도 추가로 운행된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레일크루즈 해랑이 바캉스 시즌에 맞춰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여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랑은 목요일 출발해 전국을 일주하는 2박 3일 아우라 코스와 토요일 출발하는 1박2일 레오나 씨필레 코스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알리고 배우고 소통하라!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한국 러시아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관광 홍보원정대'를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중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실행 가능한 한국관광 홍보 아이디어를 참가 목적과 함께 작성해 관광공사 국외여행 정보 홈페이지인 '지구촌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정대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관광 홍보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황재용기자

새로 나온 책

몽골 기행

박찬희/소나무

몽골은 초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울창한 수림과 만년설 사막과 황무지 호수를 모두 품고 있다. 이런 몽골은 어떤 사람에겐 운명처럼 다가온다. 이 책은 그렇게 초원에 홀려 7년간 몽골 구석구석을 누빈 기록들이다.

스페셜티 커피 인 서울

심재범/싱긋미디어

스페셜티 커피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홍대 인근부터 서대문 강남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의 30곳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소개한다. 각 매장의 분위기와 역사는 물론 커피 추출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록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거닐다

찰스 피스트렝이/시그마 북스

터키 안에서도 이스탄불은 그 화려만장한 역사만큼이나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들이 풍부해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시다. 책은 화려한 이스탄불의 모습과 터키 사람들의 매력을 컬러 화보와 함께 보여준다.

프라하 소풍

권신형/북노마드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프라하에서 1년 넘게 머물며 곳곳을 누빈 가록을 담았다. 전시 장, 인형극장 등 체코 특유의 문화 공간에 대한 담이가 잘 드러난다.

세계를 읽다 터키

아른 박아티/임소우/가지

유명 여행지 중심의 세계 여행 정보서들과는 달리 그곳의 사람과 삶에 초점을 맞춘 세계문화 안내서다. 터키에서 직접 살아본 영국인 저자가 진짜 터키를 생생히 전한다. /정혜은기자 pluq@

그가 충무로 대세인 이유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하정우

배우 하정우(36)는 부정할 수 없는 충무로 대세다. 연쇄살인마든 여자친구 겨드랑이 털에 학을 떼는 남자든 하정우가 연기하면 관객들은 믿고 본다. '타고난 배우'라는 평에 그는 스스로를 '노력형 인간'이라고 했다.

◆영화 '군도'에서 스무 살 청년 도치를 연기했다

나 스무 살 때 얼굴이 정말 그랬다. 고등학교 때 일찍 노화가 시작돼 지금 얼굴이랑 별 다를 바 없다. 스무 살이란 설정이 무리 없다는 걸 가족들은 다 알고 있다. 원래 대본엔 없었는데 윤종빈 감독이 현장에서 나는 20살, 마동석 선수는 22살로 하자고 제안했다. (배우들끼리 선수라고 부르나?) 현장에서 장난치듯 부르는 호칭이다. 문종번 선생님, 마동석 선수 또는 실장님. 다들 친해서 촬영 내내 농담을 주고 받는다.

◆윤종빈 감독과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하다

일은 친분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두 푼짜리 영화도 아니고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윤 감독에 대한 신뢰는 있다. 하지만 '윤 감독 시나리오는 꼭 해야만 해' 이런 건 없다.

◆'군도' 촬영이 힘들었다고 들었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정신 무장을 했다. 하루에 8~10시간 걸도 걸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촬영 기간 내내 머리 밀고 두피 위에 특수 분장하고, 액션신도 많고 말도 타야해서 힘들었다. 예전에 낙마사고를 당했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른 분이 다치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뒤로 말을 절대 타지 않겠노라 결심했는데 윤 감독이 사극하자. 그래서 '난 말 안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다. 윤 감독이 '근데 형 혼자 뛰어다닐 순 없잖아요'라고 해서 탔다. 말을 다시 타기 위해 8개월 정도 심리치료도 받았다.

> 말에 대한 트라우마 지우려 8개월간 심리치료
> 연기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모범생'

◆'하정우의 연기노트'가 화제가 됐었다. 지금도 쓰나

물론. 일기장 같은 거다. 불현듯 떠오른 걸 메모하고, 당장 쓰이진 않아도 다음 작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둔다. (메모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처음 연극할 당시엔 연기 편차가 심했다. 연극 특성상 똑같은 연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어떤 날은 최고고 다른 어떤 날은 최악이었다. 그래서 막연하고 불안했다. 항상 60~70점짜리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노력파다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실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부지런히 실천해야 재능으로 발휘된다. 그런 부분에서 난 노력파다. 한 두 개의 작품에서 바로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10~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배우로서 또 선배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금 마주한 작품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하려고 노력한다. (요즘 하정우를 롤 모델로 꼽는 후배 연기자들이 많다.) 얘들이 롤 모델을 제대로 잡았다. 전망이 아주 밝다(웃음).

◆지금 본인 연출작 '허삼관 매혈기'도 촬영 중이지 않나? 쉴 시간은 있나

일 주 5일 하루 12시간 촬영을 고수한다(웃음). 나름의 휴식 방법이 있다. 족욕을 매일 한다. 족욕 굉장히 좋아한다.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 크다. 집에 각탕기도 있다. 족욕왕이 된 것 같다.

◆운동도 좋아하지 않나. 'FC 하정우'는 지금도 하나

영화 '베를린' 끝나고 해체됐다. 요즘은 탁구에 빠졌다. '허삼관 매혈기' 촬영 때문에 순천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긴 할 게 없다. 그래서 매일 탁구만 5시간씩 친다. 또 편백나무 숲에서 요가도 하고 아주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연출을 하기 전과 후 차이가 있나

감독님에게 협조를 잘 하기 시작했다(웃음). 내가 연출자 입장에서 보니 '아이고, 내가 그 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날 얼마나 얄미워 했을까' 싶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연출 끝나고 감독님들한테 사과했다(웃음). 지금 '허삼관 매혈기' 할 땐 연기하다 알아서 '컷'을 외치고 '숏 들어갈게요'라고 한다. 다들 내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니까 신기하게 본다.

/김지민기자 taeyokim@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 테이블) 디자인/원승희

JYJ 29일 2집 '저스트 어스' 발표

"지금 모습 그대로 담아"

JYJ가 3년 만에 새 앨범 '저스트 어스'로 돌아온다.

17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JYJ가 오는 7월 29일 정규 2집 앨범 발매를 한 뒤 쇼케이스와 아시아 투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며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의부 작곡가 노래들과 미국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영어 곡을 포함하여 총 13곡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JYJ 공식 페이스북에 티저 사진과 재킷 촬영 현장의 소품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멤버의 개성이 돋보이며 컬러감이 있는 꽃들과 빈티지한 소품 등을 공개해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앨범은 드라마, 뮤지컬, 영화, 솔로 음반 등 개인활동으로 인해 3년 만에 발매된 것이다.

JYJ는 "앨범명을 '저스트 어스'라고 한 것은 오랜만에 발매하는 앨범이기에 자칫 부담을 가지거나 멋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대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JYJ만이 할 수 있는 음악도 많지만 JYJ가 가장 행복하게 작업한 음악으로 대중에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작업 소감을 전했다.

JYJ 저스트 어스

한편 2011년 이후 3년 만에 발매되는 JYJ의 정규 2집 '저스트 어스'는 오는 29일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된다.

/정의준기자

'유튜브 황제' 여름 공습 예고

'행오버' 조회수 1억뷰 돌파
신곡 발표 국내서 대형 공연

국제가수 싸이가 여름 컴백을 앞두고 '유튜브 황제'의 위용을 높였다.

17일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싸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1억뷰(1억7377뷰)를 넘어섰다. 지난달 8일 유튜브에 게재된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공개된지 사흘 만에 3000만뷰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조회수를 늘려왔고 공개 40일만에 1억뷰를 돌파했다.

'행오버'는 앞서 발표한 '강남스타일' '젠틀맨'과는 다른 장르의 힙합스타일로 국악기를 사용해 한국 특유의 감성도 담겨있는 곡이다.

또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코믹하게 풀어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스눕독의 지원사격을 비롯해 지드래곤과 씨엘의 깜짝 까메오 출연으로 이목을 모은 바 있다.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최근 빌보드에 발표된 '6월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와 '6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싸이는 앞서 5월 31일 '강남스타일'이 세계 최초로 유튜브 20억뷰 달성에 성공하면서 전례 없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또 다른 히트곡인 '젠틀맨' 뮤직비디오 역시 지난달 21일 7억뷰를 넘어 눈길을 끌었다. '행오버' 역시 1억뷰를 돌파한 가운데 꾸준히 조회수를 경신하며 3곡 합계 30억뷰 달성도 노린다.

이처럼 세계적인 존재감을 확인한 싸이는 올 여름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행오버'가 1년 만의 컴백 선공개곡이라면 다음달 출시할 '대디'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행오버'는 그동안 싸이가 하고 싶어 했던 장르 중 하나인 정통 힙합이었고 '대디'는 그의 주특기인 신나는 댄스곡이다.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처럼 유쾌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예정이다.

싸이의 신곡 '행오버'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 돌파를 축하하는 특별 이미지

싸이는 다음달 국내 최대 야외 공연장 두 곳에서 연달아 공연을 개최한다. 8~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 첫날 무대를 장식하며, 15~16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에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함께 공연한다.

'시티브레이크'에서는 혼자 90분간 단독 콘서트 못지 않은 공연을 할 예정이다. 'YG패밀리 콘서트'는 2년 만에 합류하는 것이라 팬들의 기대가 크다. 싸이가 이 공연에서 신곡을 최초로 공개할 지도 관심사다.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크레용팝, 레이디가가 공연 장식

북미 투어 현장 사진 공개

걸그룹 크레용팝(사진)이 레이디 가가의 북미 투어콘서트 오프닝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17일 크레용팝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크레용팝이 팝스타 레이디 가가 북미 투어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올랐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6일 크레용팝의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된 것으로 '빠빠빠' 의상과 헬멧을 쓰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프닝 무대에서 크레용팝은 '빠빠빠' '댄싱퀸' '빙빙' 어이 등 본인들의 히트곡을 30분 동안 쉼 없이 부르면서도 시종일관 생기 넘치는 모습을 유지했다.

한편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미국 휴스턴에서 레이디 가가의 북미 투어 콘서트 '아트레이브:더 아트팝 볼'의 오프닝 9회차 공연을 마친 크레용팝은 달라스, 라스베이거스, LA 등 3개 지역에서 4회 공연을 마무리한 후 오는 24일 귀국한다.

/정의준기자 [illegible]

소유·다솜 '터치 마이 보디' 화보 공개

그룹 씨스타의 소유

그룹 씨스타 소유와 다솜이 '터치 마이 바디' 컴백 화보를 공개했다.

17일 씨스타 공식 트위터에는 소유와 다솜의 두 번째 미니앨범 '터치 앤 무브' 타이틀 곡 '터치 마이 보디' 사진이 게재됐다. 소유와 다솜은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 끈 민소매와 꽃무늬 핫팬츠를 입고 있다. 건강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소유는 "더나 더워! 시원한 노래 들고 컴백! '터치 마이 보디' 기다려주세요" 다솜은 "씨스타가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터치 마이 바디'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펑키섹시를 콘셉트로 하는 이번 앨범에서 네 명의 씨스타 멤버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여름 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그룹 씨스타의 다솜

거탑마을,
어딘가 수상하다!

tvN 농디컬 드라마

황금거탑

7월 23일 수요일 밤 11시
tvN 첫방송

'OOO의 대명사' 변신하니 '호평'

최지우·신성록·장혁 이미지 탈피 화제… 조인성 코믹 연기 예고

배우에게 변신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고정된 이미지는 폭넓은 역할을 소화할 때 걸림돌이다. 최근 'OOO의 대명사'로 불리던 배우들이 변신했다. 최지우·신성록·장혁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으며 조인성은 첫 코믹 연기를 예고했다.

청순가련의 대명사 최지우는 SBS 월화극 '유혹'에서 여성 CEO 유세영을 연기한다. 아내가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 설정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지우를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날들'(2001), '겨울연가'(2002), '천국의 계단'(2003)에서 남성에 의지하는 여성을 연기했다.

'유혹'의 유세영은 냉철한 골드미스다.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에게는 "제 식대로 정착하다"고 말한다. 의상도 달라졌다. 시대 배경을 알 수 없던 촌스러운 전작 의상과 달리 화려하고 고급스럽다. 파란색 정장과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으며 도도하고 섹시하게 변신했다.

SBS 월화극 '유혹' 최지우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신성록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혁

신성록은 '짝사랑의 대명사'로서 강렬한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올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소시오 패스 이재경을 연기했다. "온몸에 마비가 올 거야"라는 대사가 유행할 정도로 역할은 화제가 됐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에선 능청스러운 소속사 사장 조근우로 변신했다. 진지하게 웃기는 코믹 연기 호평을 받고 있다.

조근우는 유머 있는 이재경이다. 대사는 엉뚱하고 코믹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여주인공을 짝사랑하지 않는다. 최춘희(정은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다. 부와 명예, 순애보를 모두 가진 그는 장준현(지현우)과의 사랑 경쟁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장혁은 MBC 수목극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음하하하"라는 웃음 소리가 어우러진 코믹 연기로 관호응을 얻고 있다. '추노'(2010), '아이리스2'(2013) 등의 작품에서 무겁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진지남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상황에 맞지 않는 진지한 모습으로 의외의 웃음을 유발했다.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여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녀가 임신한 후 사랑하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혼했지만 어색한 부부의 모습을 소화하며 "과장된 연기조차 재미 있다"는 평가다.

조인성은 "가벼운 연기를 위해 웃음 뺏었다"며 파격 변신을 예고했다.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강박증을 지닌 인기 추리소설가 겸 라디오 DJ 장재열 역을 맡았다. 드라마 '피아노'(2001), '발리에서 생긴 일'(2004),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로 애잔한 멜로를 연기했다.

'괜찮아 사랑이야'에선 인간적인 생활 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깨는 무거운 주제를 쉽게 풀기 위해 가벼운 연기를 하고 있다. 과한 코믹이 아니라 편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다듀-디제이 프리미어 협업

한·미 힙합 거장 '맞손'

'한국 힙합의 대부' 다이나믹 듀오가 돌아왔다.

그동안 자신들의 느낌을 담은 곡으로 앨범을 완성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힙합의 황금기를 이끈 디제이 프리미어와 손을 잡았다.

다이나믹 듀오는 16일 디제이 프리미어와 콜라보레이션 앨범 '어 자이언트 스텝'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에이아오'는 소울풀한 디제이 프리미어의 비트 위에 진솔한 랩, 그리고 다같이 따라 할 수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또 곡의 전두에 나오는 디제이 프리미어의 스크래치는 다이나믹듀오의 이야기를 깔끔하게 표현해준다.

디제이 프리미어와 협업을 진행한 다이나믹 듀오는 "꿈만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디제이 프리미어와 작업이 영광스럽고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며 "해외 아티스나와 작업의 처음이고, 이번 작품이 차트에서도 강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만남은 디제이 프리미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디제이 프리미어는 "다이나믹듀오 공연을 레이블 직원이 보고 대한민국에 괜찮은 팀을 봤다"고 했다. 마침 미국 외의 나라 가수와 협업을 하고 싶었는데 계기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다이나믹듀오의 음악을 받았는데, 비록 언어를 알아듣진 못하지만 목소리 톤과 플로우, 프로듀싱의 기법 등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다이나믹듀오의 음악을 칭찬했다.

디제이 프리미어는 올해로 활동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나스, 제이지, 카니예 웨스트, 블랙아이드피스, 마룬파이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작업한 인물로 힙합계 레전드로 손꼽히는 프로듀서다. /명상은기자 ysa@

16일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린 다이나믹 듀오의 새 앨범 '어 자이언트 스텝'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다이나믹 듀오와 DJ 프리미어가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 엠큐브에서 열린 tvN '황금거탑'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농촌 소재 드라마 맞대결

'푸른거탑' 민진기 PD-김기호 작가 콤비
tvN '황금거탑'·SBS '모던파머'로 맞짱

'푸른거탑'의 민진기 PD와 김기호 작가가 각각 tvN과 SBS에서 귀농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맞붙게 됐다.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 엠큐브에서 열린 tvN '황금거탑'(23일 첫 방송) 제작발표회에서 민 PD는 김 작가가 SBS '모던파머' 집필을 맡은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민 PD는 "'푸른거탑' 당시 김 작가와 귀농이란 소재를 서로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겹쳤다"며 "개인적으로 자살 쪽에서 이미 다뤘던 소재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상황이 이렇게 돼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소재여도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각각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농촌이란 소재가 최근 드라마에선 잘 쓰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금거탑'은 군대 콘텐츠로 인기를 끈 '푸른거탑'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다시 뭉친 20부작 드라마다.

이용주는 영농대출을 받기위해 위장 귀농한 청년으로, 거탑마을에서 살며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좌종훈은 두메산골 원조 토박이 노총각으로 출연한다. 김호창은 고시공부에 실패하고 귀농한 학구파 농업인을 연기하며 지난 시즌과 비슷가지로 공기 어린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우는 슬하에 딸 레나를 두고 있는 욱하는 성격의 마을 청년회장을, 정진운은 김재우의 논밭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등장해 콤비 연기를 펼친다. 박봉기는 인이 가벼운 마을 슈퍼 주인으로, 황제성은 중앙정부 입성을 꿈꾸는 농촌 지도원으로 나선다.

또 가수 겸 배우 백승기, 우즈베키스탄 출신 방송인 구잘 투르수노바, UFC 옥타곤걸 이수정,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다. 백승기는 마을 노총각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선생님을 연기한다. 구잘은 웬만한 한국 주부보다도 더 한국적인 백봉기의 우즈벡 출신 아내 역을 맡았다. 이수정은 읍내 다방 종업원으로 등장한다. 샘 오취리는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 온 가나 공화국 재무부 장관의 외아들을 연기할 예정이다. /김지련기자 kasak mik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여름 한국 영화 4색 대결

활극·사극·어드벤처·드라마 등 다양
국내 4대 메이저 투자 배급사 대격돌

여름 시즌 극장가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의 격전장이다. 올해는 국내 4대 메이저 배급사들이 화제작들을 대거 선보여 어느 때보다 치열한 흥행 대결이 예상된다.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은 오는 23일 개봉하는 쇼박스의 '군도: 민란의 시대'다.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에 맞서는 땅 짤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액션 활극을 그렸다. 하정우·강동원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군도'는 강동원의 군 제대 이후 첫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강동원은 조선 최고 무관이자 백성의 적인 조윤으로 악역에 도전했다. 윤종빈 감독은 "강동원 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조윤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극, 웨스턴, 액션 등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담은 점도 기대 포인트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CJ엔터테인먼트의 '명량'은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을 무찌른 명량대첩을 영화화했다.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을, 류승룡이 왜군 용병 구루지마를 연기했다.

'명량'의 차별점은 정통 사극다운 묵직한 무게감이다. 배우 최민식과 류승룡의 연기 대결이 볼만하다. 바다 위에 만든 해전 세트, 육지에서 배를 장착하고 촬영할 수 있는 짐벌(gimbal)을 활용한 대형 등으로 역동적인 해전 신을 완성했다.

다음달 6일에는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해적'이 개봉한다. 조선 개국을 앞두고 사라진 국새를 찾기 위해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이 벌이는 대결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해적'은 여배우 손예진의 활약을 내세워 주목된다. 해적단 두목 여월을 연기한 손예진은 생애 첫 액션 연기에 도전해 맹활약을 펼쳤다. '허당' 매력을 지닌 산적 두목 장사정 역을 맡은 김남길의 연기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다음달 13일 개봉하는 NEW의 '해무'는 봉준호 감독이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동명 연극이 원작으로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6명의 선원이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서 겪는 사건을 그렸다.

대중성과 작품성있는 영화를 제작해온 NEW의 작품이다. '해무'는 화려한 볼거리로만 꾸며진게 아니다.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과 인간성을 다룬 긴박한 드라마를 내세웠다. 박유천의 첫 스크린 주연 도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해은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베일 벗은 '타짜-신의 손'

포스터·예고편 공개 출연진 화려

'과속스캔들' '써니'에 이은 강형철 감독의 신작 '타짜-신의 손'이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타짜-신의 손'은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타짜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 '타짜' 시리즈의 2부 '타짜-신의 손'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세 종류로 하나로 연결하면 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한 판이 완성된다.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예고하는 대길(최승현) 팀, 냉혹한 승부의 세계를 암시하는 아귀(김윤석) 팀,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는 꼬장(이경영) 팀 등 11명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티저 예고편은 눈보다 빠른 손놀림,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진 타짜들의 짜릿한 한판 승부를 리듬감 있는 편집으로 담았다.

'타짜-신의 손'은 지난 2006년 개봉해 전국 684만 관객을 동원한 최동훈 감독의 '타짜'에 이은 속편으로 화제가 됐다. 최승현이 전작에서 조승우가 연기한 고니의 조카 대길 역을 맡았으며, 신세경·곽도원·이하늬·이경영·김인권·고수희·오정세·박효주 등이 새롭게 가세했다. 전작에서 아귀와 고광렬을 연기했던 김윤석·유해진도 출연한다.

'타짜-신의 손'은 추석 시즌에 맞춰 오는 9월 초 개봉 예정이다. /유해은기자

최민식·요한슨 '루시' 9월 개봉

뤽 베송 감독 액션영화 연출 복귀

최민식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이 함께 한 영화 '루시'가 오는 9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루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두뇌와 육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영화다.

국내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주인공 루시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의 강렬한 눈빛을 담았다. '인간의 평균 뇌 사용량 10%, 오늘 그녀는 100%에 다가간다'라는 카피가 더해져 스토리와 액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루시'는 포스터 공개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예고편 공개를 통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흥미로운 스토리 콘셉트와 스칼렛 요한슨의 강렬한 액션, 그녀와 대적하게 되는 최민식의 카리스마, 모건 프리먼의 무게감 있는 연기까지 더해져 개봉 직전부터 영화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출은 최근 제작자로 '테이큰' '트랜스포터' 시리즈 등을 히트시킨 뤽 베송 감독이 맡았다. /유해은기자

'산다' 로카르노 경쟁부문 진출

"올해 가장 놀라운 작품 중 하나"

박정범 감독의 영화 '산다'가 제6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는 스위스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영화제다. 한국영화는 그동안 '철수와 만수'(감독 박광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감독 배용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감독 김기덕), '낮술'(감독 노영석) 등이 초청됐다. 지난해에는 '우리 선희'(감독 홍상수)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까를로 샤트리안 집행위원장은 '산다'의 국제경쟁부문 진출에 대해 "박정범 감독은 이번 신작을 통해 가장 독창적이고 재능 있는 한국 감독들 중 한 명임을 입증했다"며 "'산다'는 올해 가장 놀라운 작품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다'는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진 누나와 어린 조카를 돌보며 살아가는 노동자 정철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월에 열린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 삼인삼색 2014 프로젝트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유해은기자

토종 방망이가 용병 '포' 잠재웠다

2014 프로야구가 지난 16일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576경기중 359경기를 소화해 전체 일정의 62%를 소화한 올해 프로야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타자의 득세와 외국인 투수의 활약이다.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 개인 부문 성적을 살펴보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상하는 타격 8개 부문에서 모두 국내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투수 6개 부문에서는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가 3개 부문 1위를 나눠 가졌다.

꿈의 타율 4할에 도전하는 이재원(SK 와이번스)이 0.394로 타율 1위를 지켰다. 토종 거포 박병호(넥센 히어로즈)는 전반기에 30홈런을 채우며 홈런 부문 3연패를 향해 순항했다. 홈런 2위(26개) 강정호(넥센·사진)는 타점 1위(73개)에 오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넥센 톱타자 서건창은 득점(80개)과 최다안타(125개) 두 부문에서 선두를 지켰다.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은 출루율 1위(0.464)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마쳤다.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는 33도루로 서건창(32개)과 박민우(31개·NC 다이노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1위를 했다.

3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에 재등장한 외국인 타자들은 시즌 초반 높은 출루율을 기록하며 홈런 경쟁을 펼쳤지만 토종 선수들의 반격에 밀려났다.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타격 10위 안에 외국인 타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홈런 부문에서도 에릭 테임즈(NC)가 박병호에 9개 뒤진 21홈런으로 4위에 올라 있을 뿐 외국인 타자들의 위세는 한풀 꺾였다.

반면 외국인 투수들은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넥센의 에이스 앤디 밴헤켄은 13승 4패 평균자책점 2.81로 다승과 평균자책점 부문 선두에 올라 있다. 14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에 노히트 노런 기록을 안긴 찰리 쉬렉(NC)은 평균자책점 2.92로 이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평균자책점 2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투수는 밴헤켄과 찰리뿐이다.

평균자책점 3위도 삼성 외국인 투수 릭 밴덴헐크(3.23)다. 밴덴헐크는 승률 부문에서 0.833(10승 2패)으로 선두를 지켰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KIA 타이거즈 왼손 에이스 양현종이 가장 돋보였다. 양현종은 10승으로 다승 공동 2위에 올랐고 탈삼진 115개로 이 부문은 선두를 지켰다. 탈삼진 2위는 밴헤켄(106개)이다.

넥센 손승락은 22세이브로 구원 1위, 한현희는 19홀드로 홀드 부문 1위를 지키고 전반기를 마쳤다.

◆ 타고투저 현상

국내·외 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반면 투수들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전반기 전체 평균 타율 0.291는 종전 최고기록인 1999 시즌의 0.276보다도 0.015가 높다. 전체 평균자책점 5.28도 1999 시즌의 4.98에서 0.3이나 높아졌다. 홈런은 712개로 지난해 798개를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 프로야구 33년 사상 최대의 타고투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외국인 타자 도입을 들 수 있다. 외국인 타자와 경쟁을 위해 국내 타자들도 꾸준히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 국내 마운드를 책임졌던 류현진과 윤석민, 오승환 등 에이스들이 해외 무대로 이동하면서 투수층이 얇아졌다.

이처럼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종종 '핸드볼 야구'가 등장하고 있다. 양팀 합해 한 경기에서 20점 이상 나온 경기만 33회에 이를 정도다.

전반기 타고투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본격적인 순위경쟁으로 접어드는 후반기 투수들의 활약에 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월드컵 성적 K리그에 달렸다"

박지성·이영표·차두리 관심 호소

박지성(33), 이영표(37·KBS해설위원), 차두리(34·서울)가 한목소리로 프로축구 K리그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들은 17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14 K리그 올스타전 기자회견에서 "K리그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지성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대표팀의 지금 모습뿐 아니라 한국 축구가 어떻게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축구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K리그가 활성화되야 하고 거기서 좋은 선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탁월한 예지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방송사들이 월드컵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중계했는데 그 열정이 K리그로 옮겨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올스타전 홍보 기자회견에서 차두리, 김승규, 박지성, 이영표(왼쪽부터)가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FC서울에서 현역으로 활약중인 차두리는 "대표팀이 4년 뒤 월드컵에서 좀 더 잘 되려면 반드시 K리그가 잘 되야 한다"며 "아직 어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대단히 좋은 선수들이 K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은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팀 박지성'의 대결로 펼쳐진다.

박지성은 해외파를 제외한 15명의 명단을 우선 발표했다.

◆ '팀 박지성' 15명 명단' ▲GK = 김병지(전남), 최은성(전북) ▲DF = 박윤화, 김치곤(이상 울산), 이영표, 미야모토 쓰네야스, 현영민(전남), 김형일(포항) ▲MF = 박지성, 백지훈(울산), 김재성(포항), 모범석(인천) ▲FW = 정조국(안산), 정대세(수원), 이천수(인천)

/유순호기자

황선홍·최용수 대표팀 감독 거론

"사서 고민할 이유 없다"… 차기 사령탑 안개속

홍명보(45) 전 대표팀 감독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선홍(46·왼쪽 사진)·최용수(41·오른쪽)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대한축구협회(FA)컵 경기를 앞두고 황선홍 포항 스틸러스 감독은 "사서 고민할 이유는 없다"며 "부상 선수도 있고 승부처(리그에서 고비가 될 경기)도 계속 찾아와 팀(포항)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협회에서 감독직 제의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거취를 고민하며 클럽 운영의 집중력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감독은 "협회가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도 "할 얘기가 없다"며 "다른 고민을 할 여력이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이 다시 나왔다. 황 감독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말하고 싶지 않고 오늘 경기만 얘기하고 싶다"고 유보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최 감독은 "여기 있는 기자들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 그건 아니다(내가 대표팀 감독으로 선거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보다 훌륭한 분이 많다"며 "나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선윤기자